“불교위기 해법, 명상포교·대사회역할로 모색”

총무원장 진우 스님, 9월 29일
취임 이튿날 종무원 기조 강연
명상힐링치유·통합포교센터 건립
재정 기반 구축 위한 방안 고민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제37대 집행부는 보다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위기극복에 나서고자 합니다. 명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여정에 책임감을 갖고 원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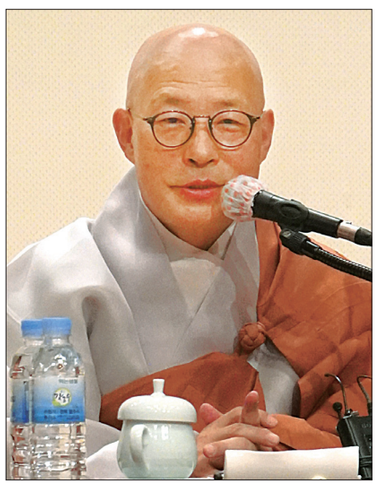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튿날인 9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기조강연에서 스님은 핵심 종책공약들에 대한 아젠다를 공유하고 불교위기 극복을 위한 종책 추진에 남다른 책임감으로 실무적인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주요 추진과제로 △명상힐링치유센터 건립 △불교통합포교센터 건립 △재정기반 강화 대안 △열암곡 부처님 바로세우기 △불교요양병원 건립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안 해결 △사회적 약자 등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진우 스님은 불자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속에서 명상 대중화가 해법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스님은 “마음의 종교인 불교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은 마음 치유, 즉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라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만 지금까지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역별 명상힐링치유센터를 건립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명상을 접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교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체득해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다짐이다.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전법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친근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녹여내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현대인들에게 변화를 통한 감동을 주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취임 이튿날 교역직 소임자와 종무원을 만나 기조강연을 통해 불교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상월선원이 펼치는 수행결사 또한 명상의 일종으로, 국민들에게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실천으로서 전달하는 방안이라고 봤다. 이에 스님은 “상월결사 걷기순례에 종단이 결합해 그 의미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포교전략”이라고 말했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불사인 불교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님은 “한 대형요양병원을 종단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 및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이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불사에 대해서도 “낙담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부처님을 천년 넘는 세월동안 쓰러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년대계본부의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한국불교, 그리고 우리 종단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기획하기 위해 보다 담대한 계획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대개편을 통해 종책사안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획 도출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단 외부의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달라는 요청에 스님은 “사회적 약자, 빈곤, 노동, 기후환경 문제 등 많은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불교의 역할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호소를 넘어 기술적으로 개입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치유하고 보듬는 불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진우 스님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행보로 장애작가들의 작품전을 찾았고, 신당동 스토킹피해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를 향한 실천적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기조강연의 막바지, 각 사안에 대해 종무원들의 공감을 확인한 스님은 대략적인 실무부서를 지정하며 책임감 있는 종무실현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시절인연으로 소임을 맡은 만큼, 역량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부실장 스님들, 국장 스님들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종무원들이 37대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이 같은 신념과 원력을 공유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적극 소통…포교·치유·상생 키워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행보는

첫 일정은 ‘미래세대와 함께’
9월28일 간담회서 청년소통
정치권엔 ‘화합 정치’를 강조
신도 임원엔 ‘포교’를 화두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9월 28일 취임 동시에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세대를 선택, ‘소통’을 실천했다. 정부인사 예방에서는 ‘화합과 상생’ 정치를, 조계종 신도단체 임원들과 만난 자리선 ‘포교’에 대한 전략을 화두로 던졌다.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첫 공식행보로 2030미래세대를 선택했다.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과 만나 불교가 젊은 세대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조계종은 이날 조계사 3층 담소에서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미래세대 청년포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학생불교연합회 조석주 회장과 유선재 서울지부장, 전혜정 포교간사와 조계사 오윤겸 청년회 대학생부장, 불교크리에이터 3기 혜장 스님, 2기 자홍 스님·이재영 씨, 연등회 다국적 서포터즈 아이엔요 티티, 하자르 씨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점심공양을 함께하는 편안한 자리였지만,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교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도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청년세대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쉽고 현대적인 포교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불교에 대해, 또 청년불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종단이 어떤 일들을 통해 함께하면 좋을지 등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뒷바라지는 종단이 맡고자 하니 각자의 생각과 의견은 물론, 제안도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소통하자.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후에는 예방 일정이 잇따랐다.



진우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예방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는(사진 오른쪽) 화합과 상생을, 청년불자들에게는 소통을 강조했다.

첫 공식예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하기 위해 종단을 찾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스님은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종교계는 국민들의 마음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종교와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경제가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교의 정신적인 힘이 사회안정과 갈등해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특히 수석실이 대통령실 불자회와 논의해 진우 스님을 초청해 마음치유의 법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이어 예방한 신도회 임원단에는 “새로운 전법, 포교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며 화두를 던졌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과 박대섭 국군불자회장, 송일호 교수불자연합회장, 조석주 대학생불교연합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의 예방을 받고 “대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전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명상 대중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승려복지제도 10년 발자취 담긴 백서 발간

승려복지회, 9월 27일 발간
법령 제·개정, 방향성 담겨



승려복지 제도 시행 10년의 활동과 성과 등 그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백서가 발간됐다.

승려복지회는 9월 27일 “승려복지법 제정과 시행 10년을 기념해 2010~2021년 승려복지회 활동과 성과, 승려복지법에 따른 승려복지제도의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4개 목차로 이뤄진 백서는 △승려복지법 제정 관련 활동 △현행 승려복지제도의 내용 △승려복지회 10년의 활동과 성과 △향후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는 승려복지회 연표와 각 위원회 소개, 관계 법령 제·개정 현황, 승려복지회보 발행 현황,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승려복지법령 등이 수록됐다. 승려복지회는 이번 백서 발간으로 향후 승려복지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세우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의 위의에 맞게 노후를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승가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 강조하고 “승려복지회는 종단과 교구의 승려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생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